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km ²	GDP	8,468억 달러 (2011년)
인구	241백만 명 (2011년)	1인당 GDP	3,514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8,770.43 (2011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약 1만8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연평균 25~27%의 열대성 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는 한편,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함.
-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ASEAN)의 회원으로 비동맹(non-alliance) 중립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친서방 외교를 통한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견조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발생, 빈부격차 및 부정부패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제성장률	6.0	4.6	6.2	6.5	6.0
재정수지/GDP	-0.3	-1.8	-1.3	-0.8	-1.6
소비자물가상승률	9.8	4.8	5.1	5.4	4.4

자료: IMF 및 EIU.

□ 민간소비 증가로 양호한 경제성장세 지속

- 2010년은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설비투자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6.2%를 기록함.
- 2011년에도 실업률 감소 및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6.5%를 시현함.
- 금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외국인투자과 국내 투자 증가가 지속되어 6.0%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 둔화 전망

- 연료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외국 자본 유입 증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5.1%, 2011년 5.4%로 상승세를 기록함.

- 2012년에는 경제성장을 둔화, 쌀생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국제 상품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과 조세 징수, 유류 보조금 지급, 광범위한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0년에 세수 증가 및 예산의 집행 지연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목표치를 하회하는 1.3%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까지 지속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8%를 기록함.
- 한편, 금년에는 정부의 예산확대(전년 대비 8.6% 증가) 및 유류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외국인투자 의존도

-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히,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투기성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 중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외국인 단기자금이 180억 달러에 달하고,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단기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총액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저조한 신규투자, 기존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 82위로 말레이시아(26위), 태국(42위), 중국(44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중심인 자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 과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음. 또한, 제품 가격의 27%가 물류 비용으로 지불(세계 평균 7~10%)되는 등 높은 수준의 물류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지역간 경제발전 불균형

-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

-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거대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12년에는 실질소득 상승에 따른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가 증가하여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67.4%를 기록하였으며 노동력이 풍부하며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은 편임.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에 따라 관련 산업 투자 기회 확대

- 석탄, 주석, 구리, 니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자 세계 2위 LNG 수출국임.

-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약 42억 배럴로 세계 22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0위, 주석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함.

- 행정 및 제도적 규제면에서 여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도요노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

□ 신투자계획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4월 내외국인 동등대우,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신투자법을 제정하고, 2012년 2월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포함하는 신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투자계획안에는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09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9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81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함.

3. 대외거래

□ 배당 송금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전망

- 2011년에는 일본 쓰나미 재해 복구작업에 필요한 상품의 수요 증가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증가한 35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한편,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 송금 증가로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는 GDP의 0.2%인 21억 달러로 감소함.
- 금년에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철광석 수출에

대한 수출세 인상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및 국내 소비자의 수입품 선호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전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국인 투자의 배당 송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125	10,629	5,144	2,070	-20,085
경상수지/GDP	0.02	1.97	0.73	0.02	-2.28
상 품 수 지	22,915	30,931	30,626	35,347	15,067
수 출	139,606	119,646	158,074	201,472	197,972
수 입	116,691	88,715	127,448	166,125	182,905
외 환 보 유 액	49,597	63,563	92,908	106,539	102,736
총 외 채 잔 액	155,531	172,918	202,445	216,145	230,045
총외채잔액/GDP	30.5	32.1	28.6	25.5	26.1
D . S . R .	12.0	15.1	13.0	12.0	12.4

자료: IMF 및 EIU

□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액이 금년에는 감소 전망

- 2011년 중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말 기준 1,065억 달러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 규모: 496억 달러(2008년) → 636억 달러(2009년) → 929억 달러(2010년) → 1,065억 달러(2011년)

- 그러나 금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은 1,0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상환능력 개선 둔화 조짐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25.5%를 기록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잔액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수출 호조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9년 128.4%에서 2011년에는 96.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D.S.R은 2009년 15.0%에서 2011년 12.0%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금년에는 수출둔화로 12.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재선 승리 정치적 기반 확립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집권 이후 견고한 경제성장,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민주주의 발전 등의 성과를 보임. 이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Democrat Party: PD)이 최다 의석을 확보한데 이어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승리함에 따라 정치적 기반을 마련함.

□ 부정스캔들 등으로 인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

- 집권 민주당의 부정부패 의혹, 부실 금융기관 지원, 법 집행력 미약 및 관료주의 등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차기 대선은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세력의 폭탄테러 등 사회 불안 요소 잠재

- 2009년 7월 제마 이슬라미야의 한 분파가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로 이슬람세력 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음.
- 이후 정부는 반테러법을 제정하고 테러 소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등 과격 이슬람 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 우려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잠재되어 있음.

□ 빈부격차도 잠재적 불안 요인

- 견조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지역,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빈부 격차의 심화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응집력 해체 등으로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최고 부자 40명의 재산총액이 최빈층 6,000만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수는 약 3,000만명에 달함.

3. 국제관계

□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참여

- ‘독립, 영구적 평화 및 사회정의에 기반한 세계질서’ 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기본 외교노선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ASEAN을 통한 역내 협력 체

제 강화에 노력하고, 2006~08년 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미국과 관계 개선 조짐

-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통해 자국 군사력 강화를 기대해 왔으나, 1999년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티미카(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중단되었음.
- 그러나 2005년 11월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2010년 7월에는 12년간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passus)와의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2010년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변국과 간헐적인 분쟁 발생

- 인도네시아 어민들의 호주 영해 내 불법 어업, 파푸아(Papua) 독립에 대한 호주의 지지 등의 문제로 호주와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왔음.
-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2010년 8월 중 양국간 분쟁수역인 리아우(Riau) 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의 인도네시아 어선 나포로 다소 악화되었음.
 - 말레이시아와는 보르네오섬 동쪽에 위치한 석유가 풍부한 암발라트(Ambalat) 해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저임금을 받는 많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의 부당대우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

- 인도네시아는 파리클럽과 2002년 4월 54억 달러, 런던클럽과는 동년 9월 13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합의하였고,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 채권국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외채원금 26억 달러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여타 채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임.

□ 단기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확대가 대외유동성에 부담

- 2010년 중 외국인 유가증권투자자금 130억 달러가 유입되어 2011년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중을 자본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외환관리 규제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2012년 5월부터는 일반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하여 외국계 자본의 은행인수를 제한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과열을 경계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 상향 조정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중기적

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과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OECD, S&P, Moody's, Fitch 모두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

- OECD는 2012년 3월 국가신용도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등급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등을 이유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1년 1월 국가신용도등급을 Ba2에서 Ba1로 상향 조정한 후 2012년 1월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 확대와 구조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Baa3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음.
- S&P는 2011년 4월 인도네시아의 양호한 경제 성과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수지 및 대외 유동성 개선을 이유로 국가신용도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Fitch 또한 2011년 12월 높은 경제성장, 무역수지 흑자기조, 공공부분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C1 (2012. 5.)	C1 (2011. 11.)
OECD	3등급 (2012. 3.)	4등급 (2011. 3.)
S&P	BB+ (2011. 4.)	BB (2010. 3.)
Moody's	Baa3 (2012. 1.)	Ba1 (2011. 1.)
Fitch	BBB- (2011.12.)	BB+ (2011. 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인도조약(2000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7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등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229억 달러와 20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대 인니 해외투자는 2012년 9월말 기준 신규법인 1,638건, 총 64억 6,334만 달러 투자금액(누계기준)을 기록함.

<표 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출	6,000	8,897	13,564	석유제품, 전자제품, 철강, 편물
수입	9,264	13,986	17,216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합계	15,264	22,883	30,780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인도네시아는 수출호조, 민간소비 확대, 고정 자산 투자 증가, 외국
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6%의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6.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비효율적 조세 징수 제도, 유류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만성적인 재
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제 상품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
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
송금 증가 등으로 2012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
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재집권 후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총외채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상황 호전
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 신용도 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조사역 서 은 주 (☎02-3779-5705)
E-mail: seounchu@koreaexim.go.kr